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녹) 연중 제17주일

2023년 7월 30일 (제2043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

근무시간: 수(9am~5pm) 목(6pm~9pm) 토/일(9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열왕기 상권 3,5-6,7-12

화답송 시편 119(118),57과 72,76-77,127-128,129-130(◎ 97ㄱ 참조)

-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웁니다. ◎
-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28-30

복음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3,44-52

영성체송 시편 103(102),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성가]	8시	입당 459	봉헌 512	성체 156	파견 6		
	11시	입당 16	봉헌 특송	성체 183	파견 402		
연중 제17주일	7월 30일(일)		8월 1일(화)	8월 2일(수)	8월 3일(목)	8월 4일(금)	8월 5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채성일 토마스	전진영 베로니카					꾸리아
독서	정일환 프란치스코 정영희 클라라	김상윤 안제로 김경선 라파엘라					꾸리아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예비신자 모집 및 교리**

- 예비신자 모집/교리 신청: 7월 30일(일)
- 예비신자 교리는 8월부터 시작합니다.

■ **성모신심미사 & 토요일 미사전례 안내**

- 8월 5일(토) 11시 미사 : 꾸리아

■ **8월 성시간**

- 8월 10일(목) 저녁미사 후

■ **본당 신부님 비자 관련 한국 방문**

- 한국 방문 기간 중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 7/29(토), 30(일) : 이종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 (몬트레이 성당)

■ **모임 및 회의**

- 구역장회의 : 8/13(일) 오후 12시 30분 교육관 106호
- 사목 회의 : 8/13(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106호

■ **황금빛인생 일일 행복크루즈여행**

- 날짜 : 9월 5일(화), 4시간, 베이지역 크루즈여행
- 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한쪽 배우자가 70세 미만일 경우에도 신청가능)
- 회비 : 없습니다.
- 점심 : 선상에서 우아하게 합니다.
- 모이는 시간과 장소: 오전 10시 30분까지
2394 Mariner square drive Alameda Ca 94501, 오세요.
- 크루즈여행노선: SF야구장, SF도심스카이라인, 금문교, 엔젤아일랜드, 알카트라즈, 트레저아일랜드, 베이브리지
- 신청마감일: 8월 20일(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취소하시면 안됩니다.
- 신청 : 황금빛인생위원 이선미에스터(오일공-구일구-육오육칠) 사목회총무 유인웅다윗(오일공-오파올-칠육삼팔)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심연자 데레사,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율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환준 분도,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육승주 아오스딩,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 **성경 통독**

- 7월 집회서 (읽기분량 : 집회서 41,1 - 43,33)
- 성경필사노트를 성물방에서 교환해가세요.

■ **미사전례복사자 모집**

- 미사전례복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 **이스라엘 성지순례(11월 8일 출발) 모임**

- 일시: 8월 13일(일), 오후 1시, 성당
- 이스라엘 성지순례 설명회 및 성지순례 참여자를 위한 이스라엘 성지 안내

■ **밥나눔 안내**

- 이번주 밥 나눔 없습니다.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삼칠오- 오일사칠)

■ **한국학교 개강**

- 한국학교 개강은 8월 19일입니다.

■ **레지오 마리에 야유회**

- 일시 : 8월 6일 교중미사 후
- 장소 : Roberts Regional Recreation Area
10570 Skyline Blvd. Oakland, CA 94611
- 참가대상 : 레지오 단원/협조 단원 및 가족
레지오에 관심있는 모든 분

■ **하상회 여름캠핑**

- 일시: 8/5(토) 2 pm ~ 8/6(일) 12pm (1박2일)
- 장소: Mount Diablo State Park

■ **안나 요아킴 라인댄싱 교실**

-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오후 1:00~3:00

■ **안나 요아킴 액세서리 만들기 교실**

- 매월 3째주 토요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제27차 북가주 성령대회 신청 및 회의**

- 8/12(토) 오전 8:30~오후 6:00 본당
- 북가주 성령대회 준비위원회 결성
- * 위원장 : 염명련 패트리샤(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 * 위 원 : 사목회장/부회장/총무, 총구역장, 평협회장, 성모회장, 밥봉사회장, 대건회장, 하상회장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오늘 헤어컷 봉사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지난 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이냐시오(7/31): 김정호
- *리디아(8/3): 조미경, 손정옥, 차영화, 유윤미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하느님 향한 삶 살 때 '참행복' 누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늘 언제나 하느님과 관계 안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는 원리였습니다. 그 존재의 첫 시작이 하느님께서로부터 비롯된 때문이기도 하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볼 때에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다른 원리는, 인간 존재의 시작만이 아니라 그 끝도 하느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당신과의 친교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중이고, 하느님께서도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께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의 일부만이 이러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아듣고 그에 응답하고 있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영성 곧 그리스도교 삶의 원리는, 자기 자신의 삶 전체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늘 알아들으면서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신앙인이 따라야 할 삶의 원리이고, 이러한 원리(영성)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곧 '영성생활'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모양새나 그 여정 안에서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이처럼 그리스도교 삶의 원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 곧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을 본당이라는 사목 현장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서는 무엇보다 먼저 본당에서 생활하고 싶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어도 사제라는 신원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래도 사제는 하느님과 신자들을 이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본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 사제로 살아가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바로 신학교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신학교에서 생활하며, 그래도 가끔은 여느 본당에 미사를 집전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아주 신이 납니다.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드리고, 신자분들과 함께 하느님 말씀을 듣고 또 강론을 하고, '역시 신부는 신자들과 함께 있어야 해!' 미사 드리는 제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그런데 제대에 서서 신자분들을 바라보면, 그 표정이 또 다양합니다. 밝은 얼굴로 웃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별다른 감흥이 없는 듯 무표정하게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치고 힘든 표정으로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노라면, 저만 혼자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는, 미사 안에서 느끼는 이 기쁨을 어떻게 신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작게는 미사 중에 느끼게 되는 고민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보면서도 하게 되는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얼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얼마만큼의 의미를 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쁘신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다 그래야 한다고 하니,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자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어떤 의무나 계명 혹은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순시기를 보내는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사순시기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참회' '보속' '극기' '절제' '희생'과 같은 단어들이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고 또 유혹에 맞서 극기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절제와 희생의 내용들을 정해놓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보속과 절제, 극기의 행동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느님께 득이 될까요? 반대로, 우리가 희생과 극기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해를 입으실까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하느님께 득이 되거나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니까요.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바라시는 이유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회개'가 하느님께 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루카 15,1-32 참조)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이고 힘들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계명들을 통해서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야, 저 세상에서 하느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 그리스도교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하느님 모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거나 의무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느님을 향해 길을 갈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다면, 신앙생활 안에서 부담이나 짐스러움을 느끼기보다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더 충만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원리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로마 6,23)

[가톨릭신문, 2017년 4월 30일]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38 명		185 명		223 명	

주일 헌금		2차 헌금		교무금	Bishop's Appeal	감사 헌금	성소	황금빛 인생	선교	빈첸시오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 강신호(7), 김영순(6), 윤순의(7-8), 김상윤(7-8), 권창모(1-6), 김영민(7), 임병선(7-8), 하숙연(4-7), 김명환(7-9), 이종규(1-6)					권창모, 김영민, 이종규	김복희				

+ 미사지향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7/30(일)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7/30(일)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조에드워드/소피아	조분도/리디아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주임신부님	김정임 마리안나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김미나	김정임 마리안나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김영희 엘리자벳	익명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김영희 엘리자벳	이요한 가족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이영기 마테오	육아오스딩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스가족		생	이영기 마테오	김엘리자벳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생	정화봉 로사	김엘리자벳
	연	박인준 아브라함	박로사가족		생	황정숙 말피나	김향진 소피아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생	안아네스/박시몬	전데레사
	연	옥제병 요한	민제노베파		생	발바라 부루스 아론조	전데레사
	연	김마르코	가족		생	김경희 사비나	김젼마
	연	부흥신 마티아	가족		생	이파트리샤	김젼마
	연	김옥희 아가다	조모나셀라		생	홍리차드/루시아	정분다
	연	최순일 요셉	강수산나		생	천다니엘/아네스	민제노베파
	연	김정탁 요셉	가족		생	박은영 미아 마가렛	김영선 안젤라
	연	김화순 안나	가족		생	이주혜 다리아	김영선 안젤라
	연	박추웅 안드레아	박정연 헬렌		생	차영화 리디아	차아름 루시아
	연	박종영 요한	박부기 안나		생	임스텔라 가정	임윤택 루시아
	연	박영실 데레사	양수산나		생	신정열 울리에따	김영순 젼마
	연	김관숙 크리스티나	양수산나		생	이영기 마테오	김영순 젼마
	연	John Blain	육아오스딩		생	이현경 보나	이에스터
	연	John Blain	이영길 안드레아				
	연	한서연 수산나	김영희 엘리자벳	8/5(토)	연	주봉진 요셉	가족
	연	한서연 수산나	김찬곤 안드레아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한서연 수산나	류삼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한서연 수산나	임윤택 루시아		연	이남희 세레나	가족
	연	부모님	이영기 마테오		연	박추웅 안드레아	박정연 헬렌
	연	이영자 마리아	이영기 마테오		연	박종영 요한	박부기 안나
	연	조숙자 루시아	이영기 마테오		연	본당 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연	채인국 다니엘	채헬레나		생	최젼마 수녀님	염파트리샤
	연	이명자 마리아	송인숙 수산나		생	구리아 활성화	구리아
	연	김재성 제이슨	이요한 가족		생	성가단 활성화	성가단
					생	성령기도회 활성화	성령기도회

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	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	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	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236-0550 강 요 한	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
--	--	---------------------------------	--	---------------------------------